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과 이해의 시각

손정인*

|| 차례 ||

- I. 머리말
- II.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
- III.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이해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는 그의 다양한 시세계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살핀 다음, 주요작품 중에서 해석상 차이가 큰 작품을 분석하여 합당한 이해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물성’과 ‘인성’을 언급한 시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보는 평소 물성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관심을 쏟았다. 그는 물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사물마다 다른 특성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한편으로 이정보는 ‘인성’과 ‘물성’을 동일시하였는데, 이러한 물성인식은 그가 살았던 18세기 전후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낙론계의 학풍인 ‘인물성동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 중에서 해석상 차이가 큰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람을 괴롭히는 해충을 노래한 일명 ‘물것’ 시조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작품이 아니라 시정의 풍류현장에서 서민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노래하여 ‘흥취’를 돋우고자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강호에서 노는 고기를 노래한 일명 ‘고기’ 시조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작품이 아니라 당쟁으로 인해 부침이 심했던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부귀영화를 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이정보의 ‘인물성동론’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의 물성인식에서 본다면, ‘고기’ 시조는 자연과 인간의 삶 모두에 내재한 ‘각박한 약육강식의 삶의 현장’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 물성론, 인물성동론, 풍류공간, 일상성, 흥취

I. 머리말

李鼎輔(1693~1766)는 조선후기 시조문학사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니는 작가이다. 그는 90여 수에 이르는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문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정보 시조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그가 남긴 작품수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¹⁾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이정보의 가계·생애 등을 살핀 뒤, 그의 시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대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데 치중하였다.²⁾

이정보의 시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정보 시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 그 사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박노준은 이정보 시조 중에는 옛시조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새로운 문제성이 있는 작품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로 보면 그는 ‘퇴행과 결여의

1) 이정보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몇몇 외설적인 사설시조를 과연 그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2) 이정보 시조의 주제에 대해 진동혁은 15항목으로 나누었고(진동혁, 『사수시조고』, 『고시조문학론』, 하우, 2000.), 구수영은 1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그 내용의 다양성을 지적하였다.(구수영, 『이정보론』,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작가’였지만, 후자로 보면 그는 ‘다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한 진정한 작가’라고 평가하였다.³⁾ 김용찬은 이정보가 문제적인 작품을 창작한 이유를 당대의 연행공간과 연관지어 파악하면서, 평시조에서는 ‘의식의 진지함’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사설시조에서는 ‘유락적이고 회화적인 시선’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⁴⁾ 남정희는 이정보 시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지배질서 내의 변화 추구’와 ‘애민적 관심과 현실의 수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⁵⁾ 정홍모는 이정보의 시조 중에서 애정시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그의 애정시조는 조선후기의 풍류 공간과 밀착된 생활 속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변모를 선취했다는 점에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하였다.⁶⁾ 이상원은 이정보 시조 해석의 근거를 순전히 작가 개인의 차원에서 찾으려고 한 기존의 시각을 반성하고, 이정보의 시조를 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 방식 등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⁷⁾ 조태흠은 이정보가 중인계층이 발전시킨 18세기 도도시정의 가악과 어떻게 연관짓는지에 주목하여, 그의 시조에 나타난 도도시정의 풍류 양상을 파악하였다.⁸⁾ 전재강은 이정보 시조의 성격을 다양성·풍류성·현실성에 두고 그러한 시조를 창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개인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⁹⁾ 김상진은 이정보 시조 가운데 사대부적

3) 박노준, 『이정보와 사대부 사유의 극복』,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4) 김용찬, 『이정보 시조의 작품 세계와 의식 지향』, 『우리문학연구』 제12집, 우리문화회, 1999.

5)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현실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6) 정홍모, 『이정보의 애정시조 연구』, 『어문논집』 제42집, 민족어문학회, 2000.

7)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8) 조태흠, 『이정보 시조에 나타난 도도시정의 풍류』, 『한국문학논총』 제38집, 한국문화회, 2004.

질서에서 일탈되는 시조의 유형을 찾아보고, 그 일탈은 그의 개인적인 성향과 18세기의 문화현상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라고 보았다.¹⁰⁾ 김상진은 이어서 이정보 시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후기의 풍속도를 도시의 유흥적 분위기, 향촌에서의 소박한 생활상, 탈권위적 표현으로 범주화하였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정보 시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면모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 살펴야 할 것이고, 잘못 이해되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기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물을 대상으로 한 이정보의 시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 주요작품 중에서 해석상 차이가 큰 작품을 분석하여 합당한 이해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

이정보는 월사 이정구와 백주 이명한 등을 배출한 명문 사대부 가문인 연안 이씨의 자손이다. 그는 평생을 관료로 보내면서 대제학·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집이 전해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선

9) 전재강, 「이정보 시조의 성격과 배경」, 『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2005.

10) 김상진, 「政客 이정보와 시조, 그 일탈의 의미」,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

11)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조선후기 풍속도-이정보 시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27집, 온지학회, 2011.

왕조실록』의 기록과 몇몇 문사들이 남긴 묘지명 등 제한적 자료¹²⁾를 통해서 그의 인물됨과 삶의 대강을 살필 수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자료적인 한계 상황하에서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를 온당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이정보의 시조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되, 그가 살다간 18세기 전후기의 사상적 동향을 통해 그의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작품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보자.

검은 거슨 가마괴요 흰 거슨 히오라비

썸 거슨 梅實이요 짙 거슨 소금이라

物性이 다 各各 달은이 物各付物 흐리라 (해주 334)¹³⁾

이 작품은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작품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극히 소략하나마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있다. 진동혁은 이정보 시조 전반을 주제별로 15항목으로 나누면서 열다섯 번째로 ‘物性時調’라는 유형을 설정하고 해당 작품으로 이 시조를 들었다. 그러나 “다음 1수는 物性을 읊었다.”¹⁴⁾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상 언급하거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정보는 이 시조에서 ‘物性’이라는 말로써 그의 물성인식의 일단을 피

12) 이정보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외에, 黃景原(1709~1787)의 문집인 『江漢集』에 수록된 『墓誌銘』과 金祖淳(1765~1832)의 문집인 『楓臯集』에 수록된 『大提學李公諡狀』, 沈魯崇(1762~1837)의 歌妓 桂纖을 그린 <桂纖傳> 등을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13) (해주 334)는 『海東歌謠』 周氏本에 수록된 334 번째 작품을 가리킨다. 이하 같음.

14) 진동혁, 앞의 책, p.294.

력하였다. 초장에서, 검은 것을 가마귀라 하고 흰 것을 해오라비라고 했다. 사물의 색채에 주목한 것이다. 중장에서는 신 것을 매실이라 하고 짙 것을 소금이라고 했다. 사물의 맛에 주목한 것이다. 종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사물의 물성은 각각 다르다.”라고 했다. 이 말은 物 마다 物性を 대표할 만한 특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物性を 제대로 파악하려면 물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초, 중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물의 특성을 어떤 것은 빛깔로, 어떤 것은 맛으로 파악해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사물마다 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면을 찾아 집중적으로 그 특성을 포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가마귀는 검고 해오라비는 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정보가 이 시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결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이정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물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특성을 잘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시조는 ‘가마귀’·‘해오라비’·‘매실’·‘소금’ 등 평범한 소재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정보의 물성인식이 드러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보는 다음의 시조에서 ‘物性’과 함께 ‘人性’을 말하고 있다.

天地 開闢 後에 萬物이 삼겨난이

山川草木 夷狄禽獸 昆蟲魚鱉之屬이 오로다 절로 삼것세라

살림도 富貴功名 悲歡哀樂 榮辱得失을 付之 절로 흐리라. (해주 382)

이 시조 역시 앞의 시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다. 진동혁은 이정보의 자연시조에는 6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 시

조를 “자연현상을 통틀어 읊은 것”¹⁵⁾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시조는 이렇게 간단히 자연시조로 보아버려도 될 것은 아니다. 이정보는 이 시조에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이정보는 ‘山川草木 夷狄禽獸 昆蟲魚鱉之屬’이 절로 생겨났으며, 사람도 ‘富貴功名 悲歡哀樂 榮辱得失’을 절로 한다고 했다. 이정보는 ‘절로’ 생겨난 사물과 ‘절로’ 하는 인간을 ‘절로’라는 점에서 동일시한 것이다. 이 점은 ‘사람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정보는 人과 物, 즉 人과 禽獸·草木 사이에 동질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상의 두 수의 시조를 통해서 이정보는 사물의 물성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인성과 물성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정보 개인의 독특한 사물인식에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점에 대한 이정보 개인의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당대의 사상사적 흐름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物性論이 중요하게 부상된 것은 18세기 초엽 ‘人物性同異論爭’으로 불리는 湖洛論爭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인물성동이논쟁’에서 ‘人物性同論’은 洛下, 즉 서울 및 서울 근교의 학인들이 견지하였다고 해서 洛論으로 불려진다. 이정보가 작품 내에 인정과 물태를 수용하게 된 바탕에는 ‘人物性同論’인 洛論의 사물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洛論은 物性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받아들인다. 性同而氣異라는 논리에 의해 人·物에 모두 오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인·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

15) 진동혁, 앞의 책, pp.286-287.

리고 이러한 사물인식의 태도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개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가능케 했다고 보여진다.¹⁶⁾

이러한 낙론의 물성인식과 이정보의 물성인식을 어떻게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정보 가문의 家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정보의 가문인 연안 이씨는 조선중기의 명문으로 洛論의 대표적인 가문이다. 증중조부인 李端相은 조선중기 대문장이었던 월사 이정구의 손자인데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象數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상수학에 대한 이단상의 깊은 관심은 객관적인 물상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는 훗날 호락논쟁에서 ‘인물성동론’인 낙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金昌協·金昌翕 형제를 비롯하여 집안의 자제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정보의 아버지인 李雨信은 당대의 山林인 李喜朝의 문하에 있었으며 김창흡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정보는 이단상→이희조→이우신으로 이어지는 家學을 자연스레 받아들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정보가 인성과 물성에 깊은 관심을 쏟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만 두 작품만을 살핀 결과로써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전반적인 경향도 위의 사물대상 시조에 나타난 그의 물성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pp.86-99.

Ⅲ.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이해

여기에서는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 중에서 해석상 큰 차이가 나는 문제작을 분석하여 합당한 이해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명 ‘물것’ 시조라고 하는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一身이 사즈 혼이 물엿 계워 못 견딜쑤

皮入겨 갓튼 갈랑니 불리알 갓튼 수통니 줄인 니 갓진 니 잔별록 굴근 별록 강별록 倭별록 귀는 놈 썬는 놈 琵琶갓튼 빈티샷기 使令갓튼 등이야비 갈썩 귀 삼의약이 삼세박회 놀은박회 바금이 거저리 불이 썩죽흔 목의 달리 기다흔 목의 야원 목의 살진 목의 글임에 썩록이 晝夜로 빈 쎄 업시 물건이 쏘건이 썰건이 뜻건이 甚흔 唐빌리 예서 얼여왜라

그 中에 춤아 못 견딜쑤 五六月 伏더위에 쉬프린가 흐노라. (해주 394)

먼저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제시하여 논의의 실마리를 삼고자 한다.

① 구수영 : 이 시조 내용을 보면, 인간주변의 온갖 해충을 열거하여 못견디게 괴로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이 작품은 당시 四色黨派들의 날땀 속에 시달려야 하는 고충을 넘지시 비유한 것이겠지만, “보리알긋튼 슈통니” “벼룩” “빈대” 등 온갖 해충을 열거 나열한 것은 짓궂은 戲作이다.¹⁷⁾

② 조동일 : 이 노래는 물것으로 사회적인 해독을 끼치는 자들을 암시했다고 보면 충격과 긴장을 구태여 조성한 효과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듣는 사람들은 갓가지 수탈이 더욱 가혹하게 이루어져 그대로는 살 수 없는 세태를 절감하고 있었기에, 갓가지 소임을 맡고 수탈의 방도를 교묘

17) 구수영, 앞의 논문, p.339.

하게 차리는 아전들의 모습을 물것들과 대응시켜보는 쾌감을 자연스럽게 누렸을 만하다.¹⁸⁾

③ 이강욱 : 이 시조는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해충들을 언급하여 언어적 분풀이를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욕심쟁이, 아침꾼, 모사꾼, 소인배들을 은연중 배척하여 풍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간착취계급에 대한 민중계급의 풍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지금까지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하겠다.¹⁹⁾

④ 김상진 : 이 작품은 이정보의 풍자시조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만하다. 탐관오리의 수탈을 ‘물 것’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물 것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탐관오리도 한 둘이 아니다. 이, 벼룩, 바퀴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가랑니, 수통니, 잔벼룩, 굵은벼룩, 왜벼룩, 센바퀴, 누른바퀴라고 나열한 것은 각양각색의 탐관오리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하는 것은 물론 수탈의 방법이다.²⁰⁾

⑤ 박노준 : 이 시조가 무엇에 빗대어서 세사를 비꼬는 풍자적인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 이정보는 ‘물것’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시적 화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토록 시적 화자를 괴롭히는 ‘물것’들의 갖은 행패와 쾌락을 “물거니 쏘거니 썰거니 찢거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통렬하고도 빈틈없이 폭로하고 있다.²¹⁾

⑥ 남정희 : 이 시조의 비유법은 이미 比擬性을 상실한 상태에서 원관념을 노출시킨다고 보았을 때 별레들은 부패한 관리일 것이며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시적 화자는 백성 일반을 지칭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사대부 시인을 대신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강력하게

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2판)』3, 지식산업사, 1989, p.301.

19) 이강욱, 『사설시조 <일신이 사자하니>에 대한 고찰』,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 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p.806.

20) 김상진, 『이정보 시조의 의미구조와 지향세계』, 『한국언어문화』 제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2, p.110. 다음의 2편의 논문에도 같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김상진, 앞의 논문, 2007, pp.158~159. 김상진, 앞의 논문, 2011, p.64.

21) 박노준, 앞의 책, pp.71~72.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탐학의 모습을 벌레들이 물고 뜯고 씹으로 비유하고 그 과정을 열거해서 행위 자체의 치졸함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은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²²⁾

[7] 정홍모 : 이정보는 수탈자들을 갖은 물것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수탈행위를 ‘晝夜로 빈 썩 업시 물건이 쏘건이 썰건이 뜻거니’라 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는 한 편,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하층민들에게는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²³⁾

[8] 조태흠 : 이 작품은 이, 벼룩, 빈대, 등에아비, 모기, 쉬파리 등 하찮은 것, 비속한 것, 가치 없는 것들 등장시켜 나열하고 있다. 이것은 회극적이고 유희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의도적 책략이며, 동시에 이 시의 지배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를 추구하는 이 작품에서 경건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이 노래가 창작의 현장을 벗어나 도시시정에서 가창되었을 때, 그 때의 청자들은 이 노래의 물것과 탐관오리들을 대응시키며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²⁴⁾

[9] 전재강 : 이 시조는 작가 자신보다는 당시 일반 백성들의 생활 현실을 대신 노래했다. 온갖 해충에 뜯기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각종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²⁵⁾

이정보 시조의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특이함에 주목하여 거의 예외 없이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해충들을 나열한 이 작품을 풍자적인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풍자의 대상을 [2], [4], [5], [6], [7], [9]에서는 민중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로, [3]에

22) 남정희, 앞의 논문, pp.244-245.

23) 정홍모, 앞의 논문, p.93.

24) 조태흠, 앞의 논문, pp.17-18.

25) 전재강, 앞의 논문, p.193.

서는 모리배, 아침꾼, 소인배로 보고 있다. 그리고 ①에서는 戲作으로, ⑧에서는 희극적이고 유희적인 재미를 추구한 작품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 작품은 풍자적인 작품인가? 이 시조의 중장에 나오는 “皮入겨 갓튼 갈랑니 불리알 갓튼 수통니”, “琵琶갓튼 빈대삿기 使令갓튼 등ैया비”와 같은 비유는 이·빈대·등ैया비의 외형을 그린 것일 뿐 특별한 함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강옥은 이 작품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작품에서 의미항들이 형성되어 묶여지고 연결되는 바탕은 보조관념 쪽이 아니라 원관념 쪽이다. 즉 ‘皮入겨→보리알→비파→사령’이 아니라 ‘갈랑니→수통니→빈대삿기→등ैया비’인 것이다. 또 皮入겨와 보리알, 비파, 사령 등의 보조관념항들은 일관되게 서로 연관되어 현실비판적 의미를 엮어내지 못한다. 이 작품이 사회현실의 어떤 점을 일관되게 풍자, 비판하기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다.²⁶⁾

이러한 견해가 제시된 이후에도 이 작품을 탐관오리를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작품을 풍자적인 작품으로 보는 견해는 작품 자체에서나 이정보와 관련된 자료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아내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자들 중에는 해충의 특성인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하는 것을 수탈의 방법으로 보기도 하고, 그 하위에 나열된 각각의 형상들을 각양각색의 탐관오리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각각의 형상을 한 벌레들이 구체적으로 수탈자의 어떤 모습과 대응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26) 이강옥, 앞의 논문, p.800.

이정보의 인간과 삶을 엿볼 수 있는 현전 자료 중에서 탐관오리에 관한 비판의식을 담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은 그의 시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탐관오리를 비판한 것으로 보는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작품 해석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⁷⁾ 이정보의 시조 중에는 서민의 일상성에 관심을 갖고서 그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린 경우는 있지만, 수탈당하는 백성의 모습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정보는 당대의 풍류세계를 주도한 沈鏞과 더불어 ‘近世風流主人’²⁸⁾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풍류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시조 중에는 아래와 같이 흥취를 위해 지은 작품이 다수 있다.

곳피면 들 싱각하고 들 봄음연 술 싱각하고
 곳피자 들 봄자 술 엮으면 벗 싱각하네
 언제면 곳 알래 벗 들이고 翫月長醉 하련요. (해주 369)

이러한 이정보이고 보니, 향촌의 삶의 풍속도를 노래한 시조에서조차도 농사의 땀과 노동의 수고로움은 제거한 채 ‘흥취’만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이

27) 기존의 연구에서는 “江湖에 노는 곡이 즐인다 불러마라”로 시작하는 시조(해주 315)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본다. 이 점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8) 沈魯崇은 이정보와 심용의 사적을 전하면서 이 두 사람을 ‘近世風流主人’이라 일컬었다. “李判書鼎輔·沈陝川鏞, 稱近世風流主人”, 沈魯崇, 『自著實紀』, 『孝田散稿』 34책.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산문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p.38.에서 재인용.

29) 김상진, 앞의 논문, 2011, p.56. 다음 시조(해주 335)와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을 打作 다흔 後에 洞內 모화 講信 흔쎄/金風憲의 메댓이에 朴勸農이 되롱춤 춘이/座上에 李尊位는 拍掌大笑 하련야.”

정보는 은퇴를 대비하여 한강 주변의 ‘鶴灘’에다 정자를 마련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풍류생활을 즐겼다.³⁰⁾ 사람들은 학탄에서 풍류생활을 하는 그를 두고 “한가한 날마다 琴客과 歌妓를 데리고 노를 저으며 강을 오르내리니, 아름다운 얼굴, 빛나는 눈동자는 마치 신선과 같았다.”³¹⁾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향락적이며 유희적인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은 “풍부한 물질적 기반 위에서 누리는 현세적 삶의 향수”³²⁾인 것이다. 이정보는 다음 작품에서 자신의 풍류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래하였다.

大丈夫 | 功成身退야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 ㅼ하두고 종호여 ㅼ갓갈리고 甫羅미 질들이고 千金駿駒 알피 미고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ㅼㅼㅼ 두고 碧梧桐 ㅼㅼ고에 南風詩 놀리호며
醉호여 누엇신이
ㅼㅼㅼ도 平生 ㅼㅼㅼ 일이 ㅼㅼㅼ인가 호노라. (해주 575)

은퇴 후의 삶을 노래한 시조이다. 시적 화자는 만권서를 쌓아 두고 천금 준마를 키우며 절대가인과 더불어 술과 가악으로 풍류를 즐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종호여 ㅼ갓갈리고”이다. 땀과 노동의 수고로움은 화자의 몫이 아니라 종의 몫이다. 화자는 이러한 물질적 기반 위에서 얻어지는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면 된다. 풍류생활을 호기롭게 자랑하는 화자에 게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는 진지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정보의 ‘물것’ 시조를 풍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기

30) 이상원, 앞의 논문, p.184.

31) “別業在鶴灘上, 每暇日携琴歌, 一棹沿洄, 韶顏炯眸, 望之若神仙中人”, 金祖淳, 『大提學李公謚狀』, 『楓臯集』 권14.

32)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제30집, 민족어문학회, 1991, p.51.

를 소재로 한 정약용의 <憎蚊>³³⁾에 비추어 찾기도 하지만,³⁴⁾ 좀 무리한 일이다. <憎蚊>을 풍자적 우화시로 해석하는 것은 작가의 발언이나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정보 시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모기를 소재로 한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풍자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모기를 소재로 한 글 중에는 일상적인 삶을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벌레의 괴롭힘을 이야기한 李鉦(1760~1813)의 『談蟲』을 살펴보자.

집은 원래 시골이고 방은 또 몹시 소박하고 누추하여, 여름이 되면 낮에는 파리가 괴롭히고 밤에는 모기가 괴롭히며, 방 안에서는 벼룩과 이가 괴롭힌다. 나는 매양 이것들을 괴롭게 여겨 감당하지 못할 듯하였다. 이윽고 생각건대, 이것들은 죽히 괴로울 것이 못 되었다. <…> 지금 나에게 이미 이 세 무리의 사람이 없고, 또 호랑이나 표범, 도적이 없으며, 또 풀숲에서 자거나 논에서 김매거나 숲속에서 나무할 날이 없다. 자리가 해지고 굴뚝이 좁으나 또한 바퀴벌레와 사마귀, 그리고 냄새나는 벌레의 재앙이 없으니, 어찌 모기와 파리, 벼룩과 이가 왕왕 번갈아 침입한다 하여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즐거움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잠을 푹 자면 네 가지 벌레가 괴롭히는 것을 알지 못한다.³⁵⁾

33) 原詩와 우리 말 번역은 송재소, 『茶山 詩選』(창작과 비평사, 1981), pp.248-249. 참조.

34) 박노준, 앞의 책, p.73.

35)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 전집 3』, 휴머니스트, 2009, pp.170-171. 『談蟲』, 『白雲筆』筆之丁. “余家既鄉曲, 房室又甚樸陋, 每當夏月, 晝苦蠅, 夜苦蚊, 室中苦蚤蝨. 余每苦之, 如不可堪, 已而思之, 是不足苦也. <…> 今余既無此三輩人矣, 又無虎豹盜賊矣, 又無艸宿水耘林樵之遇矣. 席弊埃陋, 而亦無螻蛄與臭蟲之惡矣, 豈可以蚊蠅蚤蝨之往往侵軼, 爲其苦而改其樂也? 於是思想, 眈然熟睡, 不知四蟲之爲苦矣.”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 전집 5』(자료편—영인본), 휴머니스트, 2009, pp.366-367.

이 글은 동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이옥이 자신의 경험과 민간의 전언을 중시하여 사물의 특성을 기술한 『白雲筆』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풍자적인 글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표출한 글이다. 이옥은 이 글에서 자신이 경험한 파리·모기·벼룩·이의 괴롭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민간의 삶의 모순을 다루거나 공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글은 이옥의 사소한 경험을 담은 ‘戲筆的 성향의 유희적 글쓰기’³⁶⁾로 볼 수 있다.

이정보의 ‘물것’ 시조가 보여주는 일상성은 위의 <담충>의 일상성과 통한다. 이옥은 ‘누추하며, 자리가 해지고 굴뚝이 좁은 집’에서 살았기에 파리·모기·벼룩·이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한 이옥도 바퀴벌레·사마귀·냄새나는 벌레의 재앙은 없었다고 했다. 이정보는 이옥과는 달리 훨씬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았으므로 ‘물것’ 시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종류의 벌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것’ 시조는 실제로는 겪지 않은 고통을 관념적으로 노래한 작품인가? 이정보는 실제로는 그렇게 다양한 벌레들에 의한 고통을 일일이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것’ 시조를 관념적인 것으로 보아 넘기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절실하고 구체적이다.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평생 동안 흥취를 추구한 이정보는 은퇴 후에 사대부로서의 풍류적인 삶을 사는 한편으로 시정의 풍류공간에서 中人들과 교류하였다. 이정보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시적 관심을 민간의 일상적인 삶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갔을 것이다. 특히 시정의 풍류현장에 출입하면서 ‘민간의 전언’을 통해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중놈

36)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 『한국실학연구』 제12집, 한국실학학회, 2006, p.192.

이 점은 사당년을 어더 弑父母에 孝道에 그 무엇을 亨야값?”로 시작하는 사설시조(해주 390)와 “물 우헛 沙工 물 알엿 沙工놈들이 三四月 田稅 大同 실라 갈째”로 시작하는 사설시조(해주 393)에 나오는 내용도 다 그러한 것들이다. 벌레들로부터 겪는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 것이다. 평소부터 物性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정보 이기에 ‘민간의 전언’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벌레들의 특성을 포착하여 ‘물것’ 시조에서 “물고, 쏘고, 빨고, 뜯고”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시정의 풍류공간에서 민간의 일상적 삶을 유머러스하게 노래함으로써 흥취를 돋우고자 하였는데, ‘물것’ 시조는 바로 그러한 성격의 작품이다.

이번에는 일명 ‘고기’ 시조라 하는 작품을 살펴보자.

江湖에 노는 곡이 즐인다 불어마라

漁父 돌아간 後 엿는이 白鷺 | 로다

終日을 쓰락 줌기락 閒暇흔 쟈 업들아. (해주 315)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제시하여 논의의 실마리를 삼고자 한다.

① 김상진 : 江湖에서 노는 고기는 더 없이 한가하고 여유롭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부나 백로의 표적이 되니, 걸보기의 평온함과 달리 긴장의 연속이다. 이러한 물고기의 고달픈 삶은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이 주로 풍자의 대상임을 생각할 때 ‘고기’가 벼슬길에 있는 선비를 뜻한다면 ‘漁父’, ‘白鷺’는 다름 아닌 모함자들이다. 결국 환로의 어려움을 물고기에 비유한 것이다.³⁷⁾

② 박노준 : ‘고기’를 무엇의 비유로 간주함이 좋을까? <…> 일단 약육강식의 삶의 현장에서 몰락과 죽음을 모면키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힘없는 민생

37) 김상진, 앞의 논문, 1992, p.84.

일방으로 간주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면 ‘어부’와 ‘백로’의 원관념은 스스로 밝혀진다. ‘물것’들처럼 백성의 고향을 빨아먹는 악의 존재, 곧 포악한 지배세력을 뜻하게 된다.³⁸⁾

③ 김용찬 :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존재(고기, 어부, 백로)의 관계는 그대로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고기는 ‘약육강식의 삶의 현장에 서 몰락과 죽음을 모면키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힘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어부와 백로는 틈만 나면 언제라도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이다. 이 작품은 박노준의 지적처럼 ‘피지배층의 고단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오히려 관용적인 제재들을 사용하여 전혀 새로운 의상을 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보의 시적 자질을 엿볼 수 있다.³⁹⁾

④ 남정희 : 제재와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전대의 의미망에서 벗어난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강호에 노는 고기와 백로, 어부는 서로가 먹고 먹히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 자연에서는 어떤 조화로움의 추구가 각각의 개체가 서로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므로 각박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⁴⁰⁾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단순히 ‘고기’의 삶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에서는 ‘고기’를 벼슬길에 있는 선비로, ‘어부’와 ‘백로’를 모함자로 보고 있음에 비해 ②·③에서는 ‘고기’를 힘없는 민생 일방으로, ‘어부’와 ‘백로’를 포악한 지배계층으로 보고 있다. ④에서는 고기·백로·어부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들의 삶을 각박한 현실에 견주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가운데 어느 하나에 선포 동의하기는 어렵

38) 박노준, 앞의 책 p.74.

39) 김용찬, 앞의 논문, pp.145-146.

40) 남정희, 앞의 논문, p.236.

다. 그것은 연구자들의 분석이 세밀하지 못하거나 이해의 시각이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속뜻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다 꼼꼼하게 읽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이 지닌 속뜻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보자.

먼저 이 작품의 첫머리에 나오는 ‘강호’의 공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사대부의 강호시조에 나오는 ‘강호’는 벼슬살이의 공간인 ‘한양’과 구별되는 공간으로, 사대부들이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의 삶을 영위하는 ‘강호한적’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강호’도 그러한가? 이 작품의 ‘강호’는 ‘강호한적’의 공간이 아닌 ‘현실의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강호에서 노는 고기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고기의 삶을 잘못 인식하여 ‘즐긴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못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富貴功名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성취의 삶이다. 부귀공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고기’는 못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자들을, ‘강호’는 그들이 사는 공간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작품에서의 ‘강호’는 벼슬아치들이 관직에 있는 동안 머물던 ‘한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강호’는 “권력 쟁탈이라는 욕망의 충돌로 도색된 ‘紅塵’의 성격”⁴¹⁾을 지닌 ‘욕망 경쟁 공간’인 것이다. 시적 화자는 권력을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는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기를 “약육강식의 삶의 공간에서 몰락과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전공궁하는 힘없는 민생 일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②·③의 견해는 온당하지 못하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전전공궁하는 피지배 계층의 삶을 두고 ‘즐긴다’고 인식하

41) 김현정, 『시조의 공간과 시조 이해 교육』, 월인, 2013, p.115.

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강호’의 공간은 세속적인 名利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어부’는 마음을 비우고 세월을 낚는 어부가 아니다. ‘백로’는 忘機한 존재가 아니라 고기를 엿보는 機心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자칫 방심하면 언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남자면 한시도 마음을 놓고 지내서는 안 된다. 늘 경쟁 상대자의 동태에 신경을 써야 하며 긴장의 끈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쟁 상대자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여 방심하는 순간, 역습을 당하거나 또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하고 보니, 못사람들의 눈에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높은 벼슬아치의 삶도 결코 한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작품의 종장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조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자. 시조에서 부귀공명은 주로 諫議大夫 · 三公 · 萬乘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부귀공명은 위험하기 때문에 탐할 만한 것은 결코 못 된다. 다음의 시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功名 즐겨마라 榮辱이 半이로다
富貴를 貪치마라 危機를 밟느니라
우리는 一身이 閑暇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⁴²⁾

이 시조의 화자는 부귀와 공명은 한가로움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명을 즐기다가는 욕을 보기 쉽고, 부귀를 탐하다가는 위기를 밟기 십상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42) 심재완 편저,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p.84. 242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공명을 즐겨하고 부귀를 탐한다.

이 시조의 작자는 조선후기의 유학자 金昌翁(1653~1722)이다. 그는 1680년 기사환국 때 영의정인 아버지 김수항이 賜死되자 은거하였다. 공명을 추구하는 일이 영예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임을 알기에 두려워한 것이다. 김창흡은 15세 무렵부터 李端相(1628~1669)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단상은 李廷龜의 손자이다. 이정보가 월사 이정구와 백주 이명환 등을 배출한 명문 연안 이씨의 자손이며, 그의 아버지 李雨信이 김창흡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정보는 김창흡이 기사환국 때 보인 처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위의 시조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라 이정보의 ‘고기’ 시조가 갖는 시적 맥락은 김창흡의 위의 시조와 밀접히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이 시조를 인성과 물성을 동일시하는 이정보가 ‘강호’라는 공간, ‘고기’·‘어부’·‘백로’ 등 대상의 물성인식을 통해 현실인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정보의 ‘인물성동론’의 물성인식에서 본다면, 이 시조는 자연과 인간의 삶 모두에 내재한 ‘각박한 약육강식의 삶의 현장’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이정보의 ‘고기’ 시조가 갖는 남다른 시적 시각에 관한 문제이다. 앞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시각과 의상의 참신성을 높이 샀다. 그런데 우연한 현상인지 아니면 이정보가 기존의 한시에서 어떠한 영양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적 발상이나 표현의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유사한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고려시대 李奎報(1168~1241)가 지은 <游魚>라는 7언절구이다.

뻘뻘물고기들 잠겼다간 다시 떠오르니 圍圍紅鱗沒復浮
 사람들은 득의양양하게 잘도 논다 말하네. 人言得意好優遊
 곰곰이 생각하니 잠시도 한가할 때 없네 世思片隙無閒暇
 어부 돌아가자 백로가 또 엿본다네. 漁父方歸鷺更謀⁴³⁾

이 시는 물고기를 소재로 한 7언절구의 짧은 시이지만, 이규보의 예민한 관찰력과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사람들은 뻘뻘거리며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는 물고기를 보고 득의양양하게 잘도 논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기의 실상은 그렇질 못하다. “圍圍”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듯이, 고기는 몸이 괴롭고 지쳐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저 뻘뻘거리며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보고 뜻을 이루어 득의양양하게 잘도 논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저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는 눈으로서는 고기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없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을 때라야만 숨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이규보는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들의 번뜩이는 시선과 어부들이 돌아간다 해도 다시 백로가 엿보는 상황까지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사람과 물고기를 동일시하고 있다. 고기나 사람이나 바라던 뜻을 이루고 득의양양하게 잘도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은 그칠 때가 없으니 잠시도 한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규보의 이 시는 물고기·어부·백로의 관계를 통해 냉혹한 정치세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정보의 ‘고기’ 시조는 그 발상이나 표현의 면에서 이규보의 <游魚>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사물에 깊은 관심을 쏟으면

43) 이규보, <游魚>,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13.

서 사물의 정신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진지한 시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전통적 인식태도나 평범한 안목을 지녔다면, 물고기의 노는 모습이나 백로의 忘機한 모습을 그리는 데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物性을 관찰하여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관습적 인식에서 벗어나 참신한 인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⁴⁾

이정보의 ‘고기’ 시조를 각박한 약육강식의 물 세계를 노래한 데에서 나아가 인간 세상의 냉혹한 정치현실을 다룬 차원 높은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물성과 인성을 동일시한 이정보의 물성인식과 현실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정보는 ‘다양’하고 ‘문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는 그의 다양한 시세계의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살핀 다음, 주요작품 중에서 해석상 차이가 큰 작품을 분석하여 이해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물성’과 ‘인성’을 언급한 시조를 살펴보았다. 이정보는 평소 물성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물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인성’

44)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과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이규보의 시정신에 대해서는 손정인, 『이규보 영물시의 제재와 내용』, 『한민족어문학』 제12집, 한민족어문학회, 1985, pp.98-101. 참조

과 ‘물성’을 동일시하였는데, 이러한 물성인식은 그가 살았던 18세기 전후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낙론계의 학풍인 ‘人物性同論’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정보는 洛論의 영향을 받아 物性を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人·物을 동일시하였다. 이정보의 사물대상 시조에는 이러한 물성인식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보 사물대상 시조 중에서 해석상 차이가 큰 작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연구자들이 선입견을 갖고 작품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작품 자체에서나 이정보와 관련된 자료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아내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해충을 노래한 일명 ‘물것’ 시조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작품이 아니라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정보는 은퇴 후에는 시정의 풍류현장에 적극 참여하여 삶의 흥취를 노래하였다. ‘물것’ 시조는 풍류현장에서 일상적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노래하여 ‘흥취’를 돋우고자 지은 것이다. 그리고 강호에서 노는 고기를 노래한 일명 ‘고기’ 시조 역시 탐관오리를 풍자한 작품이 아니라 각박한 현실 정치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았다. 이정보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평생을 당쟁의 와중에서 관료로서 살았던 인물이다. 이정보는 ‘고기’ 시조에서 당쟁으로 인해 부침이 심했던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정보의 ‘인물성동론’의 물성 인식에서 본다면, 이 시조는 자연과 인간의 삶 모두에 내재한 ‘각박한 약육강식의 삶의 현장’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실사학사고전문학회 역편, 『완역 이옥 전집』 3·5, 휴머니스트, 2009.

정약용 저·송재소 역주, 『다산시선』, 창작과 비평사, 1981.

심재완 편저,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황충기 편저, 『교주 해동가요』, 태화출판공사, 1994.

2. 논문 및 단행본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제30집, 민족어문학회, 1991, p.51.

구수영, 「이정보론」,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백산출판사, 1986, pp.322-344.

김상진, 「이정보 시조의 의미구조와 지향세계」, 『한국언어문화』 제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2, pp.79-114.

_____, 「政客 이정보와 시조, 그 일탈의 의미」,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 pp.143-174.

_____, 「시조에 나타난 조선후기 풍속도-이정보 시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27집, 온지학회, 2011, pp.43-72.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38. pp.36-54.

김용찬, 「이정보 시조의 작품 세계와 의식 지향」, 『우리문학연구』 제12집, 우리문화회, 1999, pp.127-156.

김현정, 「시조의 공간과 시조 이해 교육」, 월인, 2013, p.115.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현실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pp.233-252.

박노준, 「이정보와 사대부 사유의 극복」, 『조선 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pp.58-91.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인식」, 『한국실학연구』 제12집, 한국실학학회, 2006, p.192.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pp.86-99.

- 이강옥, 「사설시조 <일신이 사자하니>에 대한 고찰」,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
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pp.795-807.
-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pp.165-193.
- 전재강, 「이정보 시조의 성격과 배경」, 『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2005, pp.179-
207.
- 정홍모, 「이정보의 애정시조 연구」, 『어문논집』 제42집, 민족어문학회, 2000, pp.77-10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2판)』3, 지식산업사, 1989, p.301.
-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pp.261-310.
- 조태흠, 「이정보 시조에 나타난 도도시정의 풍류」, 『한국문학논총』 제38집, 한국문학
회, 2004, pp.91-112.
- 진동혁, 「사수시조고」, 『고시조문학론』, 하우, 2000, pp.259-303.

Abstract

The Character and perspective on
Lee, Jeong Bo's Sijo related to things

Son, Jung-In

Sijo related to things is one feature of Lee, Jeong Bo's various poetic worl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 of Lee, Jeong Bo's sijo related to things, and which provides our perspectives of his major works.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Lee, Jeong Bo's sijo related to things through sijo referring to 'nature of things' and 'human nature'. He usually had a significant interest in grasping property. He thought we ne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ing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correctly. In one way he identified 'human nature' with 'nature of things'. Such perception closely bounds up with academic tradition of Nak school-'conception to identify human nature with nature of things'-around Seoul and in which he lived the 18th century.

This study focused on works in a different perspective among Lee, Jeong Bo's sijo related to things. Consequently many researcher misread his works. Sijo 'insects harmful to people' was not to satirize corrupt officials but to describe his daily life. He expressed natural aspects of everyday life in sijo humorously to heighten the excitement of the event in the taste field. Sijo 'fish playing in the river' was also not to satirize corrupt officials but to point out the real political situation. His work not only reflected the ups and downs of his life by strife between the parties, but also warned against seeking wealth and prosperity to people.

Key Word : Lee Jeong Bo, Sijo related to things, human nature, nature of things, taste field, everyday life, interest, enjoyable entertainment.

손정인

소속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주소 : (712-715)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번지

전화번호 : (053) 819-1313 / 010-2655-5914

전자우편 : sji@dhu.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